

배포일	2015. 12. 22.(화)	배포담당	홍보팀
담당부서	발전기금 기획팀	문의	변영현(02-871-1621)

제목: 유라코퍼레이션 엄병윤 회장「선한 인재 이어달리기」 참여 서울대 장학금 모금캠페인 4개월간 총 199명, 88억원 기부

- 유라코퍼레이션 엄병윤(외교학과 1964년 졸업) 회장이 서울대 모금캠페인 「선한 인재 이어달리기」의 선한팀 주자로 참여해 '선한 인재 장학금' 1억원을 쾌척했다. 서울대학교는 이번 기부로 장학금 모금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.
- 12월 21일(월) 총장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성낙인 총장, 엄병윤 회장, 김정환 학생처장을 비롯해 주요 교내 인사들이 참석했다.
- 성낙인 총장은 “도전과 혁신을 토대로 한 창조적 기업가이신 엄병윤 회장님은 사회 환원 노력에도 남다른 귀감을 보여주고 계신다”며 “이번 장학금은 우리 학생들이 창의와 헌신, 배려를 실천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소중히 활용할 것”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.
- 이어 엄병윤 회장은 “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모교가 추구하는 선한 인재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전달되길 바란다”며 “이 장학금을 받은 우리나라의栋梁지재(棟梁之材)인 후배들이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고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길”이라고 말했다.

- 엄병윤 회장은 언론인으로 대한일보, KBS, 서울경제신문 기자로 활동했으며, 이후 현대자동차서비스 이사, 세화인쇄사 대표 등을 거쳐 현재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세림공업(現 유라테크)을 창업했다. 이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연간 매출액 1조원이 넘는, 국제경쟁력을 갖춘 유라코퍼레이션을 성장시켜 우리나라 기술경제발전에 공헌하고 있다.
- 한편 서울대 개교 70주년 모금캠페인 「선한 인재 이어달리기」는 현재 199명의 기부자가 참여해 약 88억원의 약정액을 달성하며 순조롭게 향해 중이다.(2015.12.21. 기준) 이번 기부 릴레이는 선한 / 인재 / 장학 각 세 팀으로 나눠 팀별 70명의 주자를 목표로 선발주자들이 다음 후원자를 추천해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, 기부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'선한 인재 장학금'에 전액 사용된다.
- 이번 기부 릴레이는 금액과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서울대발전기금 홈페이지, 이메일, 우편, 전화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, 후원은 장학금 후원→ 응원 메시지 작성→ 다음 주자 추천의 순으로 진행된다. 각 팀별로 70명의 주자가 완주하여 결승선을 통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년 2월까지 모금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.(*캠페인 현황 및 후속 주자 확인은 서울대발전기금 <http://www.snu.or.kr> 홈페이지 참조, 문의 02-871-1624*)

(사진설명: 협약서 서명 후 성낙인 총장(左)과 엄병윤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)